

SK이노베이션, 영업실적 개선 뚜렷

SK이노베이션은 2011년 1/4분기에 사상최대 영업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.

조승연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“SK이노베이션이 1월1일자로 정유, 화학 사업을 자회사 SK에너지와 SK종합화학으로 분리해 SK에너지, SK종합화학, SK루브리컨츠 지분 100%를 거느린 중간지주회사에, 석유개발, 리튬이온 2차전지 사업 등 신규사업을 육성하게 됐다”며 분사 이후 영업실적이 대폭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.

이어 “정제마진은 높아졌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개발 이익은 견조하며 윤활유 사업은 호황국면”이라며 “141분기 영업실적은 100%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3곳 등을 포함한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15조원, 영업이익 8500억원이 예상된다”고 설명했다.

또 “2011년 SK이노베이션은 각 사업별 분사와 함께 효율적인 자원 배분(소제사업투자)은 물론 정유, 화학 분야에서 대규모 이익 창출 등이 가능할 것”으로 예상했다.

<화학저널 2011/03/21>